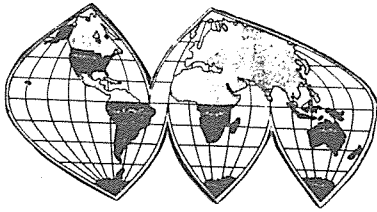


# 石油 地政學(下)



## — 美下院 에너지·資源 委員會 報告書 —

玄源福訳〈科学저널리스트〉

석유경쟁은 더욱 다양화되고 정치영역으로 깊숙히 번져 나가면서 자유세계 결속에 걸린 긴장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해 질 것 같다. 이런 긴장은 「에너지 獨立國」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모든 공업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업국가들이 석유공급의 梗塞문제를 다룰공동의 접근책을 이른 시일내에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소비국가간의 격화된 경쟁은 자유세계우방간의 분열을 더욱 조장시켜 잠재敵對國들이 이용할 새로운 틈바구니를 만들고 중동의 무력분쟁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

5) 중동에 대한 소련의 점증하는 이해관계와 서유럽의 에너지공급을 둘러싼 통제와 심화는 서방결속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중동의 긴장과 공업국가들의 석유경쟁은 앞으로 20년간 소련의 경제, 에너지 및 군사발전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1980년대의 소련 경제성장의 심각한 둔화는 특히 석유생산을 포함한 에너지계획의 가격상승과 생산량감퇴로 더욱 심화될 것 같다.

소련의 산유량이 소련과 동구의 1980년대 수

요를 충족시키든 말든 소련은 中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모색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련은 중동산유국에 대한 보다 큰 영향력을 획득함으로써 서구·미국·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 아랍산유국에 대한 영향력의 증가로 소련은 국내의 불리한 경제추세를 바로 잡고 서방과의 경제경쟁에서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소련의 석유부족은 소련지도층에 대해 중동에 있어서 영향력을 확장하라는 압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소련은 세계시장에서 석유를 사들일 硬貨를 보유하게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석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중동산유국에 대해 정치적인 조작, 협박 또는 무력행사를 통해 석유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 같다. 소련은 이 지역의 국내 불안을 이용하고 반대파를 원조하고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고 모스크바에 동조하는 혁명운동을 지원하므로써 페르샤만국가에 대해 공공연한 행동을 취할 것 없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비교적 등한시해 온 두번째의 주요한 사태는 서구의 淸蘇가스공급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등은 이미 가스의 15~20%를 소련에서 수입하고 있고 서독은 소련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소비량의 30% 이상을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고 발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소련이 서구에 대한 가스수출을 늘릴 수 있는 한 서방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정치, 경제 및 군사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서구의 대미협력능력을 억제할 수 있다. 西歐의 소련가스 의존은 동서간의 통상, 예민한 분야의 淸蘇 기술이전, 아프리카니스탄침략과 같은 소련침략 행위의 허용등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그 우방간의 분열을 조장시킬 수 있다.

6) 開途國의 경제성장둔화와 外債의 격증은 경제발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금융제도를 위협한다.

일부 低開國은 다행히 상당량의 炭水化資源

과 그밖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많은 低開國들은 적어도 20세기말까지는 수입석유에 의존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제발전을 지속하자면 석유수입이 필요하지만 外産原油의 대가는 경제성장의 속도를 막는 주요한 阻害요인이 된다. 1990년까지 이 나라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하자면 低開國들 國家들의 수입석유값은 모두 1천억弗(1980년 弗貨가격)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 석유공급에 교란이 생기거나 석유값이 인상될 때 많은 低開國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경제적기반을 강화하는데 지출해야 할 돈은 석유대가를 지불하는데 전용되어서 경제개발계획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어 낼 것이다.

경제침체의 전망은 여러 開國의 정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은 거의 틀림없다. 이런 가능성은 미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딜레마를 제기한다. 미국의 대외 및 경제정책의 일반목표인 低開國의 경제개발과 성장을 촉진하자면 低開國의 석유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산유국과의 특별지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이것은 다시 세계석유값과 공급에 더욱 큰 압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勸告案〉

한편 이 보고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출했다.

1) 미국의 되도록 빨리 戰略 석유비축고를 채우는 한편 민간의 석유 및 석유제품비축을 부추겨서 「國內石油備蓄高」를 확보해야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석유공급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備蓄石油 바렐마다 2백弗에 가까운 GNP損失을 상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석유의 충분한 비축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략석유비축고는 정상수입의 供給量의 20일분이하밖에 갖고 있지 않다. 최근까지 미국정부는 산유국의 감정을 도발할까 두려워 비축고를 채우는 것을 삼가했다.

2) 미국은 우방들과 협력하여 에너지위기에

대처할 계획을 전개시켜야 한다.

국제에너지 계획과 정상회담에서 이미 취한 노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미국과 우방은 주요한 공급교란의 영향을 덜고 산유국들이 석유를 정치무기로 이용하는 능력을 줄이는 집단적인 새로운 조치를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 미국은 우방들과 함께 중동의 안정을 강화하고 소련이 이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저지할 조치에 최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미국의 대중동정책은 어떤 기본원칙을 固守해야 한다. 미국과 우방들은 중동의 상호국가들이 내분을 다루고 지역적인 분쟁에서 자위할 스스로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군사원조와 군사훈련을 증강할 공동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석유의 안전공급은 전세계국가들에게 중요하므로 미국은 이 노력을 단독으로 책임져서는 안된다. 우리의 우방들은 소련의 진출을 막고 그밖의 위기를 다루기 위한 공동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미국 영도력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4) 미국은 우방들과의 협력으로 중동지역에서의 석유탐사와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멕시코와 베네주엘라는 미국과 우방들에게 중동석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 가장 큰 국가들이다. 미국은 멕시코와 함께 멕시코의 에너지개발을 포함한 互惠協力관계를 수립하려는 뜻을 과시해야 한다. 미국은 멕시코가 과잉산유능력에 설비를 하도록 부추겨서 이것을 국제에너지 위기간중 신속하게 수출고를 늘리는데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은 또 베네주엘라기 방대한 중질유매장량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높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미국은 베네주엘라에 대해 에너지안전공사를 통한 기술협력과 금융지원외에도 重質油源개발에 필요한 시장의 안전성을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은 低開國의 석유탐사 및 개발의 금융지원을 위한 호혜계획에 강력한 지원을 동원해야 한다. (Science, 19. Decemer, 1980)